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성공을 위한 당연한 선택

2021 상공회의소 자격시험 및 우수 활용 사례 안내 Vol. 4



비서 자격증으로, 올림픽에서 취업까지

정석호 /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으로 비서 실기과목 면제를

대학교 졸업 후 시간제로 근무하던 어학원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일을 하고 있었다. 주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경영지원부에서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았는데, 가끔씩 결원이 생겨 상담부에 지원을 가게 되면서 학원에 방문하시는 고객들을 응대하다보니 누군가를 모시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상담했던 고객님이 등원을 결정하거나, 불만을 표했던 고객님이 만족하며 갈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다. 이미 상공회의소에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이나 실제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던 터에 자연스럽게 비서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이후 어떤 진로를 이어나갈지 모르던 상태지만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믿음과 추후 응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응시하기로 결정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갔다.

다행히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으로 비서실기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온전히 필기시험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기에 한 번의 응시에 바로 합격을 할 수 있었다.

전공과 무관한 자격증이라 생소한 단어와 개념들이 많았지만 실제 고객을 응대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CS(customer satisfaction)관련 지식과 어학원의 근무경험, 비서영어를 다시 공부하면서 생긴 영어지식으로 인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비서자격 취득과 함께 한 평창올림픽이라는 특별한 경험

이 자격증 취득으로 더욱 기억에 남는 부분은 평창올림픽에서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이다.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진로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했었다.

자격증을 12월에 취득하고 OBS(olympic broadcasting services) 의전/수송/수행 부문 단기계약직에 지원했고 면접 시 비서자격증 취득을 강조했으며, 이어 업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능력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실제로 합격하고 나서도 공부했던 많은 부분들을 활용했다. 일례로 업무 특성상 상사와 함께 관내 출장을 갈 일이 많았는데 자격증을 준비할 때 배웠던 비서 실무에서의 출장관리와 상사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타 문화권에서 오신 상사 분들과도 원만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정식 비서 역할은 아니었으나 종일 일정을 같이 보내며 상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일조하고 나는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했다. 큰 규모의 행사를 직접 발로 뛰며 경험해보니 더욱더 비서 직무 쪽으로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원하는 직종인 비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최종면접에서 2~3회 고배를 마시고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 풀려서 말레이시아 해외법인으로 나가게 되었다. 비록 내가 간절히 원하던 직종은 아니었으나

고객을 상대하는 것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요식프랜차이즈 해외법인이었기 때문이다. 유교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한국 요식업이란 상당 부분 달랐지만 상사의 일정 관리나 기초적인 의전준비에서 많은 부분을 자격증 준비하면서 배웠던 지식으로 준비를 할 때가 많았다. 문화권이 비록 다르더라도 자격증을 준비할 때 기본적인 사항은 이론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기에 큰 틀에서 준비를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선임들과 함께 상황에 맞게 조율해 나가면서 업무를 처리했던 기억이 많다.

비서자격과 CS분야 경험이 인정 받는 호텔리어 바탕이 되다

해외에서 약 1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잘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이유는 직접 고객을 모시는 '비서 같은 역할'의 일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재취업을 다시 한 번 준비하면서 '조금 더 질적으로 우수한 고객서비스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일념 하에 이번에는 조금 더 폭넓게 비서와 더불어 호텔리어까지 포함해서 직종 범위를 생각하고 준비했다.

면접 당시 호텔리어로서 경력 없이 지원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서자격증을 취득한 이유와 그 뒤로 올림픽, 해외취업을 겪으면서 CS마인드를 잘 길렀음을 강조했다. 총괄지배인님께서 비서 자격증, 올림픽에서의 의전/수행 경험 등을 골고루 좋게 평가해주셨고, 그 결과 현 직장에서도 잘 적응하게 되었다. 승진도 이른 시간 내에 달성하고 만족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 모든 결과는 비전공자인 내가 비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일종의 CS분야에서 '검증된 재원'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격증 취득 후 현재까지 근 3년간 다양하고 값진 경험을 하게 해준 비서 자격증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